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4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현장소통팀장 권미희 ☎440-2416 • 담당자 최대리사 ☎440-2418	
사업 부서	철 도 과	담당자	• 도시철도팀장 이동일 ☎440-3916 • 담당자 안길재 ☎440-391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송도트램사업 조속 추진에 최선
- 4일,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시민들께 직접 설명 -
- 유시장, “올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송도트램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4일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시민들을 만나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송도트램 2030년 개통을 호소합니다!’라는 시민의견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열린 시장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창구다.

이번 시민의견은 GTX-B 개통 시기인 2030년에 맞춰 송도 트램 조기 개통을 호소하며 송도 트램을 동시 개통해야 환승에 따른 광역철도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송도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또한 시민들은 트램 착공목표를 앞당기면 토지 매각 금액을 높일 수 있어 인천시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조기 착공을 요청했고, 30일간 3천67명의 시민이 공감해 답변이 이뤄졌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 김성훈 등 관련 시민 30여 명과 만난 유정복 시장은 “송도트램은 민선8기 시정방침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를 위한 교통분야 실천과제 30개 중 철도사업이 18개나 될 만큼 철도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중앙정부나 인근 지자체 등과 해결해야할 난제도 많지만 오직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만을 생각하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조기개통 요청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첫 단추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4월부터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설계, 인가, 공사, 개통까지 약 10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GTX-B 사업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 시민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http://cool.incheon.go.kr/>)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7:00)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 (‘23. 4. 4.)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유정복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좋은 인천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3천여분 이상 시민께서 공감해주신
‘송도트램 2030년 조기개통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시정방침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를 위한
교통분야 실천과제 30개중 철도사업이 18개나 될 만큼
철도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업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앙정부나 인근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난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천 미래와 시민 교통 편익 증진만을 생각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송도트램은 송도 주민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트램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조기개통 요청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첫 단추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사업화방안 용역을 시작해
최적의 노선과 운영 방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상반기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설계, 인가, 공사, 개통까지 통상적으로 약 10년 내외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GTX-B 사업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간 협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인천시 최우선 가치는 시민 행복과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진행상황이나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과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